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금' 1000억원 출연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식 체결·'신기술 개발 공모제' 통해 동반성장 지원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8월 중 대중소기업협력 재단에 1,000억 원을 출연한다.

삼성전자는 7월 25일 서울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 혁신기술협의회 등과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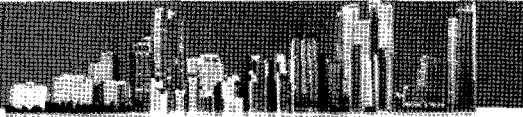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영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이세용 이랜텍 대표이사 등 삼성전자 1·2차 협력사 대표,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윤주화 사장, 최병석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기술 개발 공모제'에는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된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자금이 부족한 국내 중소, 중견,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설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신소재 개발과 같이 단기간에 상용화가 적용 가능한 '단기 과제'와 차세대 통신, 친환경 소재, 신기술 IT 부품과 같은 '중장기 과제' 등 2가지다. 공모된 중소기업의 제안은 '신기술 내용'과 '기술 개발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게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기술 개발비의 70%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과 기술 지원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특허 등을 취득하면 공동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화로 이어질 경우 거래협력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신기술 개발 공모제'를 통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실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과 동반성장의 문호 확대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개발자금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삼성전자와의 거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신기술 개발 공모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면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서 국내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원자재 변동가격을 부품단가에 즉시 반영하는 합리적 단가결정 제도와 중소 협력사의 기술보호 제도를 마련,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베이,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총 140억원 규모 지원·CCMS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도 함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이베이지마켓·옥션은 7월 14일 오전 리츠칼튼호텔에서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판매자와 동반성장 및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시민단체 대표 참여 및 CP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및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을 도모하게 된다.

중소·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 발행, 전통시장 전용광고 코너 설치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해외판매지원(CBT)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판매자 육성, 기타 세무교육, 마케팅 교육, 법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판매자들의 사업 운영 관련 지원 등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전지원 등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판매자의 CCMS 도입 지원을 통해 판매자 분쟁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동시에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 만족 및 신뢰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짝퉁상품이나 사기성 거래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단(T&S) 운영과 더불어 사업자 제재 수단을 확립하면서 PIMS, ISMS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협약 체결식에 이어 개최된 CCMS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을 통해, 이베이가 직접 도입비용을 부담해 판매자들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포스코건설,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선포

기존 고객 관련 프로세스 재점검해 자율관리 체계화



포스코건설은 7월 22일 송도사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갖고, 기존 고객프로세스를 더욱 체계화 할 것을 다짐했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증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불만과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글로벌 표준 고객관리 프로세스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동화 최고경영자와 CCMS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하는 자율위원회 및 각 부서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상된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소비자보호와 서비스 만족에 대한 기업의 책임, 실무진과 임직원들의 역할을 공표했으며, 서비스부문은 물론 영업·마케팅, 설계부서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 등 고객과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모든 직원이 CCMS에 동참해 고객의 신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CCMS 도입을 통해 기존 고객 관련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자율 관리하는 한편, 각 부서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완성도 높은 시공품질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CCMS 자율위원회는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철저한 고객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며, 10월에 실시될 CCMS 평가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POSCO

포스코건설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사업' 출범식 개최

지원 협력회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탄소경영' 확대



하이닉스반도체는 7월 26일, 지난해에 이어 협력회사의 탄소 경영 지원을 골자로 한 '협력사 저탄소 경영체제 구축사업' 출범식을 갖고, 지원 협력회사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1차 사업 년도 기간 동안 심텍, 케이씨텍 등 1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탄소경영 현황 진단 및 평가, 탄소경영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배출원 모니터링 및 탄소경영전문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1만 2,500여 톤의 이산화탄소(CO₂) 절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하이닉스는 이번 2차 사업 연도에는 테스, 세미텍 등을 포함 18개 협력회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해 협력회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선정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닉스의 환경안전그룹 정윤영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협력회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6월 '2011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중·소 그린파트너십부문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SK그룹, MRO 사업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다

매출액 1000억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화



SK가 MRO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SK그룹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MRO 사업 처리를 놓고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해 왔으나, 사회적 기업화가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안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등 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기업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 중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SK그룹은 이미 사회적 기업 사업단을 두고 운영하면서 행복 도시락, 행복한 학교 등 사회적 기업을 테마로 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이 같은 측면에서도 크게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의 MRO 사업을 맡고 있는 MRO코리아는 지난 2000년 7월 SK네트웍스와 미국 Grainger International사가 51:49의 비율로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02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SK그룹이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MRO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회적 기업은 SK그룹과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중소기업들과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대기업 사회적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맞는 지배구조와 경영구조를 갖춰 기업경영방식 등에서도 완벽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양질의 MRO 상품을 납품받는 사회적기업간 Value-Chain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 같은 Value-Chain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SK는 이를 위해 추후 정부 및 시민단체의 여론 수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 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우 SK(주) 브랜드관리실장은 “SK가 MRO 사업을 SK식 사회공헌 방식인 사회적 기업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사회 간의 상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대기업 제조사·중소 장비업체 등 8개 회사, LTE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과 중소 장비 제조사, 기술협력으로 4G LTE 시대 이끈다



SK텔레콤은 7월 26일, 중구 T타워 33층에서 권혁상 네트워크부문장이 LTE 시대 국내 통신장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장비 제조사·중소 중계기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LTE 시대 국내 통신장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장비 제조사 및 중소 중계기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

장 협약을 체결, 새로운 상생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LTE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한 회사는 총 8개사로,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을 비롯해 LTE 기지국 장비 제조사인 대기업 삼성전자, LG에릭슨,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 3개사와 중소 중계기 제조사 쉐리테크, 씨에스, 지에스인스트루먼트, SK텔레시스 4개사다.

이번 대·중소기업 LTE 동반성장협약은 중계기 제조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던 SK텔레콤이 대기업 기지국 제조사 측에 협력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단순 생산협력 차원이 아닌 기술 협력을 포함한 동반성장 방식에 대해 LTE 기지국 제조사로 선정된 3개 대기업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SK텔레콤이 대·중소기업과 함께 구체적 업무 협력 범위를 논의·발전시켜 결실을 맺었다.

SK텔레콤은 중계기 업체의 참여 제안서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술·연구·생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계기 업체 4곳을 선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파트너 선정은 각 중계기 업체들이 상호 협력을 희망하는 대기업 순위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후 동반성장 이행과정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결과 삼성전자는 (주)지에스인스트루먼트 및 SK텔레시스(주)와 협력파트너를 이루고, LG에릭슨은 (주)씨에스와, 또한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는 (주)쉐리테크와 기술협력 파트너로 정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 제조사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 중계기 제조사가 전체 LTE 기지국 RU 장비물량의 50%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소 중계기 업체들은 3년간 약 700억 원 이상의 LTE 통신장비를 SK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기업 장비 업체들은 중계기 제조사가 RU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TE 기지국 개발 과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U와 RU간 상호 연계(인터페이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중소 제조사에 개방했다. 또한 기지국 개발부터 생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도 중소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는 등 '통 큰' 동반성장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J, '동반성장 및 상생 대책' 발표

1000억원 규모 상생자금 마련·중소기업·가맹점주에 기술·자금 지원



CJ그룹이 중소기업 및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CJ 동반성장 및 상생 대책'을 8월 8일 발표했다.

이재현 회장이 지난 7월 특별지시를 통해 “단순히 서류에 편승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지속가능하며,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

을 제시했었다고 CJ 측은 전했다.

CJ그룹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지역에 특화된 전통 장류, 두부, 김치 중소기업체를 발굴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전국 유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및 마케팅지원에 나선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단순 OEM 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막걸리 유통처럼 중소기업 자체 고유브랜드를 살리고 대기업은 기술, 유통, 자금, 식품안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상생모델”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이와는 별도로 3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들어 협력업체에 저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을 하는 CJ푸드빌과 올리브영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신규 점포 오픈이나 리뉴얼 공사 때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자금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CJ푸드빌은 푸레쥬르 가맹점과의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마련해 각 점포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160억 원 가량의 상생자금을 확보했다. 또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신제품의 20%를 가맹점주가 제안한 품목으로 선보이는 한편, 가맹점주와의 온·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특히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계약시 상권 영역을 설정하는 등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헬스&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은 모든 신규 가맹점주에 대해 4,500만 원을 무상 지원한다. 초기 3개월은 월 1,000만 원씩, 이후 3개월은 월 5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CJ그룹의 또 다른 축인 E&M 부문에서는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CJ E&M은 올 하반기에 500억 원의 펀드 출자를 통해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지원형 펀드인 글로벌 펀드에 100억 원, 모태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키로 한 데 이어, 사모형 콘텐츠펀드에 150억~250억 원, 드라마펀드에 5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작가 펀드를 설립해 드라마작가를 육성하고, 애니메이션 CG 3D 등 콘텐츠 관련 기술 투자를 통해 우수 인력과 업체가 육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생명, '공정거래 실천 결의 대회' 개최

공정거래법규 준수 통한 회사 손실 방지 및 이미지 제고



대한생명은 8월 9일 여의도 한화파이낸스센터 별관 1층에서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및 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는 공정경쟁과 상생이 요구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를 강조하고,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을 통한 회사 손실 방지 및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날 참석한 대한생명 임직원은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화그룹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정도'의 실천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인 준법경영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대한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은 "공정거래 실천 결의 대회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불공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회사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301억원 동반성장펀드 조성

동반성장펀드 681억원 규모로 확대



STX조선해양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조성한 동반성장펀드가 산업은행의 참여로 총 출연금 681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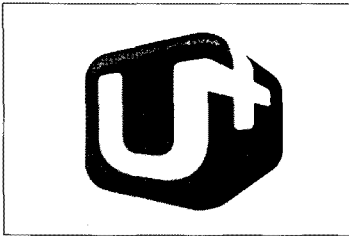
7월 4일, STX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동반성장펀드 조성에 동참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301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6월에 기업은행, 경남은행과 함께 3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참여함으로써 확대 조성된 동반성장펀드는 향후 산업은행이 301억 원, 기업은행이 240억 원, 경남은행이 140억 원 규모로 각각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조성으로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기준금리보다 19~2.5%포인트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STX조선해양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LG유플러스, 국내 벤처와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엔젤투자그룹인 프라이머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신규 벤처사업 모델 발굴 및 개발



LG유플러스는 전문 엔젤투자그룹인 프라이머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벤처사업 모델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LG유플러스는 내부로부터의 혁신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기업의 장점과 벤처 생태계의 역동적 에너지

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와 프라이머의 제휴 배경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통신시장은 물론 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통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LG유플러스가 내년 6월말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유무선이 모두 All-IP 네트워크로 탈바꿈하게 되어 벤처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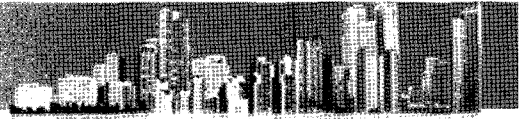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프라이머가 육성하는 창업기업들(Primer Club)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LG유플러스 내부 아이디어 중에서 벤처에 더 적합한 모델의 경우에는 Primer Club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과 벤처 상생 모델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공개 직전에 투자해 고수익을 남기는 벤처캐피탈의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와 전문 엔젤투자그룹(Angel Investor)인 프라이머를 통해 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며,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벤처기업이 초기단계에서 가입자 확보, 플랫폼 완성도 등 사업기반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비를 지원하며, 서비스 공동 기획 중에는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고 서비스 공동 기획 이후에는 개발 및 운영 오너십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유통망, 콜센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컨버전스사업단 노세용 전무는 “통신사의 사업 운영 노하우와 프라이머의 사업 성공 경험을 토대로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디어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IT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산업차량,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및 자율준수편람 제작 등 CP 필수 요소 단계적 실행



두산산업차량은 8월 18일 인천광역시 하버파크 호텔에서 두산 임직원 및 협력회 회원사 대표들, 그리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종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두산산업차량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범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는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박진원 두산산업차량 부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CP는 무한경쟁 시대의 필수 요건이며,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번영과 회사의 지속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산업차량은 최창순 구매담당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지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는 한편, 전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CP 7대 필수 요소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은행과 동반성장펀드 조성

두산중공업 340억원, 두산인프라코어 180억원 규모로 각각 펀드 조성 협약 체결



KDB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과 3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169억 원을 예탁하고 산업은행이 171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재원을, 시중금리보다 2% 낮은 수준으로 3년 만기로 확대해 협력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7월 29일 산업은행과 총 1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맺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90억 원을 예탁하고 산업은행이 90억 원을 출연했다.

김한철 산업은행 부행장은 "동반성장펀드는 수출대기업과 협력업체, 산업은행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5·6의 동반성장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고객사·공급사 차세대 경영자 교육 실시

포스코, 리더십·경영기법 전파·동반성장 차원 13주간 진행



포스코는 5월부터 8월까지 13주에 걸쳐 고객사·공급사 차세대 경영자 교육과정을 운영,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과 선진 경영기법 등을 전파했다.

고객사와 공급사의 차세대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정은 미래창조아카데미에서 합숙형태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포스코에 대한 이해와 경영자 리더십, 사례학

습을 통한 토론과 현장체험활동, 주요 부서별 직무순환 교육과 현업부서에서의 인턴십 과정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 포스코는 경영자 리더십과 선진 경영기법 전수과정을 통해서 차세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높여 고객사와 공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코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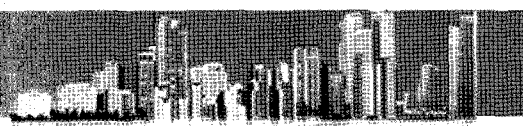
또한 포스코 경영현황과 가치 이해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과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차세대 경영자에게 꼭 필요하고 더 많이, 더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계기와 동반성장활동 기틀을 제공했다.

차세대 경영자들은 이번 교육으로 포스코의 선진화된 일하는 방식 등 선진 경영기법 이해, 현업 부서에 대한 업무 이해력 증진은 물론, 고객사·공급사의 이업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해 향후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마케팅본부와 구매지원센터에서의 인턴십 과정에서는 동반성장활동의 중요성을, 부문별로 구성원 전원이 노력하는 모습에서는 포스코의 경쟁력을 각각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부서에서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고의 길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2011 R&D 협력사 테크데이' 개최

2차 협력업체와 기술 교류·'중소업체의 기술력이 현대·기아의 경쟁력'



현대·기아차가 1차 협력업체에 이어 2차 협력업체 기술지원 확대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2차 부품 협력업체들과 자동차 산업 동향, 신기술 개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품질 및 기술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지원성과를 대표적 신기술 교류 행사인 '2011 R&D 협력사 테크데이(Tech Day)'에 선보였다. 현대·기아차는 9월 7일부터 열린 테크데이에 2차 협력업체들의 신기술도 전시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11 R&D 테크데이'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남양연구소 및 롤링힐즈에서 개최됐으며, 파워트레인, 차체, 전장, 의장, 새시 분야에서 26 건의 세계 최초 신기술, 37 건의 국내 최초 신기술, 13 건의 현대차·기아차 최초 적용 신기술 등 총 91건의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출품됐다.

9월 7일 열린 개회식에는 양용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부회장,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 회장 등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등 총 1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용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부회장은 "완성차-부품사간 신기술 교류의 장인 R&D 테크데이는 협력업체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2차 부품 협력업체들이 테크데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R&D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협력사 테크데이'는 부품 협력업체의 우수 신기술이 신차 적용 및 양산으로 이어져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증가된 매출이 다시 우수한 신기술 개발로 재투자되는 '기술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현대차·기아차의 대표적 R&D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테크데이 외에도 '협력업체 R&D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협력업체 품질학교, 기술학교, 업종별 소그룹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가동하고 있다.

협력업체 R&D 기술지원단은 신차 개발시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 및 부품품질 확보를 위해 현대차·기아차가 보유한 기술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지난해 신설된 조직으로 40여 명의 상근 인원을 포함해 270여 명의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협력업체 품질학교'는 협력업체의 안정적 품질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1·2차 협력업체 품질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 한국지엠, “미래성장 기반은 협력업체의 최고 품질”

“협력업체 동반성장의 기본 토대는 양보할 수 없는 품질에서 시작”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글로벌 중형 세단 ‘말리부’ 출시를 앞두고 국내 협력 업체들과 무결점 품질 확보를 통한 지속적 상생과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지엠은 국내 부품 협력업체 대표 300여명을 제주로 초청해 9월 8일부터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지엠 마이크 아카몬 사장을 비롯, 기술개발부문 손동연 부사장, 구매부문 엠 벤카트람 부

사장, 품질부문 게리 웨스트 전무 등 제품 개발과 구매, 품질 분야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의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무결점 품질 확보, 신흥시장 공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워크숍 기간 중 협력업체 대표들은 아카몬 사장 등 한국지엠 경영진으로부터 각 부문별 경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품 개발, 구매, 품질 부문 최고임원들과 글로벌 중형 세단 말리부, 알페온 eAssist 등 향후 출시될 신차의 ‘무결점 품질’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국내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년 완성차 2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해외 부품업체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중국 선양시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지엠 부품 협력업체 대상으로 부품업체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및 절차를 소개했다.

이날 아카몬 사장은 “올해 쉐보레 브랜드 출시와 연이은 신차 출시로 내수 및 수출에서의 꾸준한 판매 증가 등 한국지엠의 성공적인 변화는 부품 협력업체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국지엠이 엔지니어링, 생산 품질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것처럼 부품 협력업체도 최고의 부품 품질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카몬 사장은 “지난 5월 동반성장 선포식을 가진 바 있는 한국지엠은 국내 부품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국지엠과 협력업체는 긴밀한 협조 속에 세계 최고의 품질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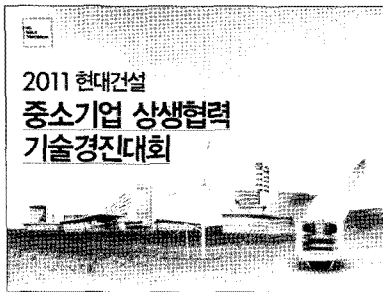
한편, 한국지엠이 GM 그룹 내에서 글로벌 경차 및 소형차 개발 기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냄에 따라 함께 참여했던 국내 부품업체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GM에 부품을 수출한 국내 부품업체 수는 2002년 16개사에서 2010년 233개사(누계)로 증가했고, 지난 5년간 국내 부품업체들이 GM그룹 내 글로벌 사업장으로 수출한 부품 규모는 약 187억 달러에 달한다.



현대건설, 동반성장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경진대회' 개최

우수기술 보유 협력업체 발굴 및 기술개발 유도 위한 기술경진대회 진행



현대건설이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와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 현대건설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기술경진대회'는 현대건설 및 계열사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의 응모 분야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자재 및 신기술·신공법 분야와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혁신적 아이디어(미래 유망산업 전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분야로, 접수는 현대건설 홈페이지 www.hdec.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7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는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능하며, 기술·아이디어 제안서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제안 및 아이디어는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창의성, 첨단기술 활용, 실용성, 기술자산가치, 신규 사업 가능성, 파급성, 열정과 탐구 의지 등의 기준에 맞춰 1차 분야별 전문가 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1차 통과 대상)를 거쳐, 11월 첫째 주 현대건설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원가절감 효과가 크고,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은 현대건설 현장 우선 시공권이 부여되고, 수상업체는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 입찰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추가 개발이 필요한 제안은 공동개발은 물론 개발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기술경진대회는 그간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올해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현대건설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